

명품 막걸리에서 이제는 지역 대표 증류주로



'위기의 전남 쌀 구하자'... 쌀 소비 촉진 향토업체 찾아서

(8)해남 '해창주조장'

유기농 찹쌀 사용해 감미료 無...매년 지역 쌀 360t 소비 이달 중순께 해창 대장경 25·45·82도 신제품 출시 예정

정부가 쌀 소비 촉진을 위해 막걸리와 같은 전통주의 주세 경감 대상을 2배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쌀 가공식품 촉진을 유도하고 있다. 이에 해남군에 있는 '해창주조장'은 예전부터 꾸준히 지역 쌀을 사용해 지역 농가의 상생은 물론 전국을 대표하는 유명 막걸리 회사가 됐으며 이제는 증류주 시장에도 도전해 더 많은 쌀 소비에 앞장설 계획이다.

11일 해창주조장에 따르면 해남군 화산면 해창길에서 지난 1927년 일본인 시바다 히코헤이가 미국 चा초를 짓고 주조장을 운영했다.

그 뒤 시바다와 함께 일하던 장남 문씨와 황의 권 씨를 거쳐 지난 2008년부터 4대 주인으로 오병인(88)대표가 맡아 오고 있다.

해창주조장은 오 대표가 맡으면서 본격적으로 변화가 시작했다. 그는 전국 주조의 대가를 찾아다니며 제조법을 배웠고 중국, 독일 등에도

나가 증류주 공부도 하고 왔다.

현재 해창의 대표 상품으로는 9·12·15·18도 등이 있다. 이러한 막걸리 발효 단계에는 한 번만 담가 완성하는 단양주부터 이양주, 삼양주 등으로 구분하는데 과정이 많을수록 고급술로 평가 받는다.

이중 18도 상품은 1년 중 설과 추석, '가정의 달'인 5월, 연말에만 예약 판매를 하기 때문에 구하기도 쉽지 않지만, 판매 개시 후 며칠 만에 무조건 매진된다.

해창 9·12도는 삼양주와 18도는 사양주며 빚는 방법과 더불어 재료도 중요한데 해남에서 재배한 유기농 찹쌀을 사용해 매년 300t 정도의 쌀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오 대표는 기존의 업체들과 달리 감미료를 일절 사용하지 않고 찹쌀과 쌀쌀의 최적 비율을 찾아맛을 내고 용량도 시중 막걸리와 달리 90



전국적으로 유명한 막걸리 회사인 해남 '해창주조장'이 예전부터 막걸리 제조에 지역 쌀을 사용해 생산농가와 상생을 두고 있다. 왼쪽부터 해창주조장 임구 전경, 오병인 대표, 해창 막걸리.



0ml로 먹는 소비자가 부족함이 없도록 연구 개발했다.

이러한 정성으로 해창은 지역을 넘어 전국 대형마트들에서 판매되며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전국에 해창막걸리를 알리는 데 성공한 오 대표의 다음 목표는 증류주 출시다. 수년 전부터 하이볼 수요의 증가와 외국에 나

가 증류주 공부까지 했던 그는 이달 중순께 25·45·82도 해창 대장경을 명동 신세계 본점·강남·광주 신세계와 일부 서울 이마트에서 먼저 선보일 계획이다.

오병인 대표는 "고려 시절 몽골군에 의해 증류식 소주가 전파돼 그들의 주둔지인 안동 등에서 술이 많이 발달했다"며 "이와 연관돼 팔만대장경에서 이름을 따 해창 대장경으로 지었다"고

말했다.

이러 "막걸리와 달리 증류주는 유통기한과 온도 등에 덜 민감해 한국 소비자와 해외 소비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을 것 같다"며 "중국 증류주보다 유기농 찹쌀로 만들어 품질이 훨씬 더 좋다고 자부해 해외 시장도 공략해볼 생각으로 우선 가까운 중국, 대만, 일본 등에 선보일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안태호 기자

프리실버타운

탐라 입주권 특별분양

프리실버타운 탐라 제주

프리실버타운 탐라 도고

탐라레저그룹은 국내 최초로 프리실버타운 탐라 입주권을 1,500만원 특가로 1차 150구좌 한정 분양합니다.

(탐라콘도 리모델링 준공 후 프리실버타운 입주권 분양가는 3,000만원으로 인상)

01
입주권 소유권이전 등기보장

02
전국 한방병원 할인가 이용

03
전국 리조트 700곳 할인가 이용

04
전국 220곳 골프장 부킹 서비스

05
1년 4회 장수 프로그램 무료이용

06
매월 1회 힐링 프로그램 무료이용

07
년 1회 해외여행 서비스 제공

프리실버타운 탐라에서 새로운 세상의 기적을 만나세요.

- ◆ 탐라프리실버타운은 수천만원 또는 수억원의 입주보증금을 납부하고 입소해서 매달 수백만원씩 생활비를 별도로 납부하면서 장기로 입주 생활을 하는 기존의 실버타운이 아닙니다. 탐라프리실버타운은 소액의 입주 분양금을 납부하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입소해서 이쁘지고, 건강해지고, 행복해지는 다양한 시니어 커넥트 프로그램에 따라 단기간 입주생활을 하는 신개념의 국내 최초 실버타운입니다.
- ◆ 시니어 커넥트 프로그램은 베이비부어 세대인 시니어들이 프리실버타운 탐라에서 전생(전직)으로 만나서 자연치유 혁명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의 기적을 만들고 체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 프리실버타운 탐라 입주권은 1차 1,500만원, 2차 3,000만원, 3차 4,500만원으로 분양가가 인상됩니다.

탐라프리실버타운은 수천만원 또는 수억원의 입주보증금을 납부하고 입소해서 매달 수백만원씩 생활비를 별도로 납부하면서 장기로 입주 생활을 하는 기존의 실버타운이 아닙니다. 탐라프리실버타운은 소액의 입주 분양금을 납부하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입소해서 이쁘지고, 건강해지고, 행복해지는 다양한 시니어 커넥트 프로그램에 따라 단기간 입주생활을 하는 신개념의 국내 최초 실버타운입니다.

시니어 커넥트 프로그램은 베이비부어 세대인 시니어들이 프리실버타운 탐라에서 전생(전직)으로 만나서 자연치유 혁명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의 기적을 만들고 체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프리실버타운 탐라 입주권은 1차 1,500만원, 2차 3,000만원, 3차 4,500만원으로 분양가가 인상됩니다.

프리실버타운의 기적
(주)탐라레저그룹

입주 문의 **1533-1494**

FTA '실무 맞춤형 교육' 호응

광주FTA통상진흥센터 올해 일정 성료...지역 수출기업 임직원 113명 수료

광주상공회의소에서 운영중인 광주FTA통상진흥센터가 2024년 연간 FTA 교육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친 가운데 실무 맞춤형 교육이 참석자들로부터 호응을 이끌어냈다.

광주FTA통상진흥센터는 지역 수출기업의 FTA 활용 능력 향상을 목표로 ▲초보자를 위한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실무(2회) ▲FTA 원산지 기초교육 ▲FTA KOREA 원산지관리 시스템 교육 ▲FTA 수출입 통관실무 교육 ▲FTA 원산지 사후검증 대응교육 ▲FTA 원산지 발급실무-아세안 집중 공략편 교육편 등 총 7회에 걸쳐 교육을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총 113명의 지역 수출기업 임직원에게 수료증을 전달했다.

특히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수요 증가에 따라 지난 11월19일에는 'FTA 원산지 발급실무-아세안 집중 공략편'교육을 개설해 수출 기업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았다.

이 교육은 대한상공회의소 FTA 상담 관세사인 박현수 강사가 진행했으며, FTA 개요, 품목 분류, 원산지결정기준 및 판정 사례 등 이론적인 내용을 학습한 뒤에 한-아세안 FTA 및 RCEP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관리 실무, 인증수출자인

증 절차와 원산지 사후검증 등의 실무적인 내용으로 교육이 진행됐다.

교육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실무 중심의 강의와 체계적인 FTA 기본지식 전달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광주FTA센터는 교육생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실무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강조병 광주FTA통상진흥센터장은 "여러 교육들이 지역 수출기업들로 하여금 FTA 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요 교역국의 비관세장벽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이고 전문화된 교육을 통해 지역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역량을 제고하고, 무역 실무 능력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FTA통상진흥센터에서는 교육 외에도 컨설팅, 통-번역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 수출 및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기업은 누구나 상담이 가능하다. 관련 상담과 무역증명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광주상공회의소 기획조사본부(062-350-5888)로 문의하면 된다. /임채만 기자

광주TP '미니 노벨도서관' 개관

한강 작가·故 김대중 대통령 도서 77권 보유

광주테크노파크는 11일 "지난 10일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과 함께 광주의 의미를 더욱 기리기 위해 본관 1층에 미니 노벨도서관을 개관했다"고 밝혔다.

도서관에는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과故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의 자랑스러운 순간을 되새기기 위해故 김대중 대통령 및 한강 작가의 도서 77권이 비치돼있다.

김영집 광주테크노파크원장은 "시작은 미약 하더라도 앞으로 더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용함으로써 향후 규모도 키워 나가며 더욱 활기차고 유익한 장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주테크노파크 미니노벨도서관은 광주 시민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도서대여는 광주테크노파크 경영기획팀(062-602-7722)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은솔 기자



탄소중립 실현을 앞당기기 위한 재생에너지 100% 사용 약속

RE100 기업의 자발적 참여로 만들어갑니다

한국에너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